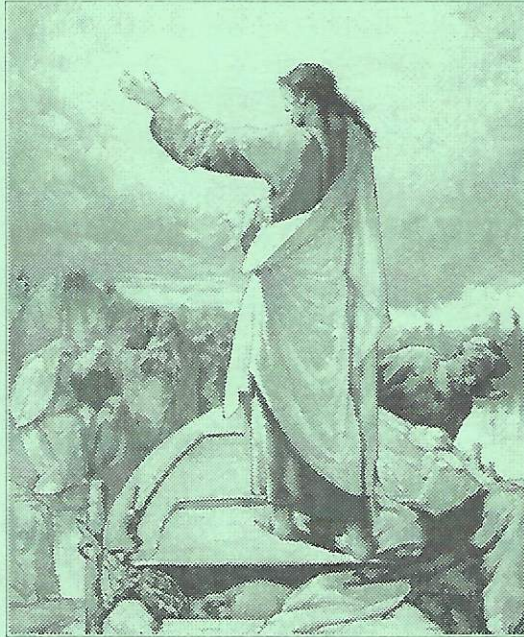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위령 성월 연중 제 31주일
제34권 49호(가해) 2014년 11월2일

[묵상]



고생하며 무거운 짐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生者必滅

어떤 흥미로운 묘비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묘비의 글은 세 줄이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서 이 글을 읽고 있었소."
'무슨 이런 묘비가 다 있는가' 하고 웃었습니다.

두 번째 줄을 읽고 난 뒤에 순간
'이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서 그렇게 웃고 있었소."
마음이 확 찢려움을 느꼈습니다.

자세를 가다듬고 긴장된 마음으로 세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나 하시오."

본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지금부터 철저히 하며 살도록 다짐합니다.
현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삶을 통해,
나눔과 섬김의 삶을 통해,
천상에서 누릴 참된 행복을 꿈꿔봅시다.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텍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아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6:0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배튼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오후 1:00 ● 꾸리아 오후 1:45 3째주 - ● 요셉회 ● 사목회장단 오후 1:00 4째주 - ● 사목회 오후 1:00 ● 빈첸시오회 오후 3:00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124위 시복특집 < 9 > 홍낙민 루카(1751~1801년)

...이제 나는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1784년 이승훈에게 세례를 받고 한때 가성직제도의 신부로 활동한 홍낙민 루카는 1788년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들어섰습니다. 1791년 신해박해 때, 천주교 신자들과 가까이 지낸다는 이유로 임금 정조에게서 경고를 받아 홍낙민은 천주교를 멀리하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 그는 여전히 기도 생활을 하며 교리의 가르침에 따라 재(齋)를 지키기도 하였습니다. 1795년 주문모 신부가 입국한 것이 발각되어 율요박해가 일어나자 홍낙민은 두려운 나머지 “천주교의 폐해는 홍수나 맹수보다 심하여 철저히 금하지 않는다면 장차 나라에 큰 화가 될 것”이라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천주교 신자임을 알고 있던 정조는 “공직에 있는 자는 제 생각을 있는 그대로 임금에게 말해야 한다.”며 솔직하지 못한 홍낙민을 책망하였습니다. 한편 시간이 지나면서 홍낙민은 다시 교리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1799년에 모친상을 당해서는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신주도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여전히 천주교를 멀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마자 홍낙민은 동료들과 함께 체포되어 의금부로 끌려가 문초와 형벌을 받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는 처음부터 나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혹독한 문초와 형벌이 계속되는 동안 홍낙민은 여전히 용기를 내지 못하여 유배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이전에 보이지 않던 용덕(容德)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마침내 재판관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날에 한 모든 것은 비겁하게 목숨을 보전하려던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또 대질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니, 저의 마음속에 있는 말을 모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용감하게 죽고자 합니다. 제가 섬기는 하느님은 하늘과 땅과 천신과 사람과 만물의 주재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 하느님을 위하여 죽고자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천주교 신앙의 진리를 증거하렵니다.” 고문으로 몸이 으스러지면서도 홍낙민은 “이제 나는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끝내 사형판결문을 받아든 그는 “이제 내가 받을 죽음은 이전의 배교에 대한 벌이므로 기꺼이 받겠다.”며 흔쾌히 서명하였습니다. 홍낙민은 1801년 4월 8일 명도회 회장 정약중, 총회장 최창현 등과 함께 서소문 밖으로 끌려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습니다

◆ 서울대교구 홍보국 역임

순례자의 영성

저무는 11월에 한 장 낙엽이 바람에 얹혀가듯
그렇게 조용히 떠나가게 하소서
한 점 흰 구름 하늘에 실려가듯
그렇게 조용히 당신을 향해 흘러가게 하소서
... 죽은 이를 땅에 묻고 와서도 / 노래할 수 있는 계절
차가운 두 손으로 촛불을 켜게 하소서
해 저문 가을 들녘에 / 말없이 누워있는 벚단처럼
죽어서야 다시 사는 영원의 의미를 깨우치게 하소서

-이해인의 시 <순례자의 기도> -

세상 떠난 이들을 위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위령의 달, 위령의 날을 나는 좋아합니다. 우리 수녀님들이나 친지들이 긴 잠을 자고 있는 무덤가에 서면 마음이 절로 차분하고 온유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떠난 분들에 대한 그리움에 잠시 슬퍼지다가도 그들이 보내오는 무언의 메시지에 정신이 번쩍 들곤 합니다. 지난해와 올해만 해도 여러 명의 수녀님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어떤 분은 매장을 하고, 어떤 분은 화장을 해서 수녀원 묘지에 모셔옵니다. 비록 육신은 떠났으나 그들이 너무도 생생히 꿈에 보이거나 바로 곁에 있는 것처럼 기도 속에 떠오를 때면, 허무를 넘어선 사랑의 현존으로 행복을 맛보기도 합니다. 오래전 수도공동체의 수련장이었던 노수녀님을 동료 수녀와 같이 간병하러가서 환자 수녀님과 성가도 부르고 배도 깎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다음날 새벽 수녀님은 갑자기 살짝 주무시듯이 고요하게 선종하셨습니다. 지켜보던 우리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동료 수녀는 떠나는 수녀님을 향해 “아주 가시는 건가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라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말이 어찌나 간절하고 인상적이던지! 잠시 출장을 가거나 지상 소임을 마치고 저쪽 세상으로 이사 가는 이에게 건네는 이별 인사로 여겨져서 슬픔 중에도 빙긋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먼저 떠나가서 친숙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가보지 않은 세상이기에 두렵고 낯설기도 한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11월, 우리는 그 무엇에도 그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 가벼움과 자유로움으로 순례자의 영성을 살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아직은 오지 않은 자신의 죽음을 잠시라도 묵상하는 것은 오늘을 더 충실하게 가꾸는 축매제가 되어줍니다. ‘잠자는 이들과 죽은 이들이 어쩌면 그렇게 서로 같은지!’라고 한 <길가메시 서사시>의 한 구절을 새겨봅니다. “주님, 이 밤을 편히 쉬게 하시고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매일 외우는 끝기도의 마무리 구절을 묵상해봅니다. 삶의 여정에서 자존심 상하고 화나는 일이 있을 적마다 언젠가는 들어갈 ‘상상 속의 관’ 속에 잠깐 미리 들어가 보는 것, 용서와 화해가 어려울 적마다 십자가위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는 순례자의 영성을 살아야겠습니다. 자신을 극복하는 작은 죽음을 잘 연습하다 보면 어느날 주님이 부르실 때, “네!”하고 떠나는 큰 죽음도 잘 맞이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 이해인 수녀·시인 / 올리베타노 성베네딕도 수녀회

전례복의 여러 의미에 대해 알려주세요

☞ 전례복은 여러 가지 기능과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특히 전례 주년과 축일 및 예식의 의미를 드러내고, 봉사자들의 고유 직무를 표시하며, 전례 행사를 성스럽고 아름답고 성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기능에 따라 전례복은 재료, 형태, 색깔 등이 전례행사와 봉사자의 직무에 적합하며 고상하고 아름다우면서도 복음적인 단순성을 간직해야 합니다. 전례 거행에서 전례복을 입는 의미는 교회의 공식 시종자로서 예식을 거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이같이 직무의 다양성은 전례 중에 예복의 외적인 차이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전례복은 각 직책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표지가 됩니다.

◆ 정의철 신부 / 생활서서

◆SAT II 한국어시험 : 11월 8일

- 백삼위 한국학교 학생 11명이 응시합니다.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문의 : 한국학교장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213)700-9399

◆103위 앙상블 단원모집

- 자격 : 중학생 이상으로 초견연주가 가능하고
금요일 저녁 연습이 가능한 학생
- 연주 : 한학기에 2~3회
- 문의 : 진영선 크리스티나 ☎(310)781-0856
주일학교 교장 김낙기 바오로 ☎(310)709-3343

◆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 자격 : 영어 가능한 남녀 교우
- 문의 : 주일학교 교장 김낙기 바오로 ☎(310)709-3343

◆분당 소년 레지오마리에 단원(그리스도의 어머니 Pr.)모집

- 자녀들이 레지오 활동을 통해 성화를 이루며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신앙활동을 하면서 성장하도록 권면합니다.
- 대상 : 주일학교 등록학생
 - 주회 : 매주 금요일 오후 4:30pm
 - 장소 : 성당2층 교실
 - 문의 : 김낙기바오로 단장 ☎(310)709-3343

“새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 남가주 합동 위령미사

- 일시 : 11월 8일(토요일)
- 연도 : 1시30분, 미사 : 2시
- 장소 : 홀리크로스
- 주관 : 평화의모후 한인 천주교회

◆ 제27기 커피 교육 안내

- 일시 : 11월 16일(일요일) 낮 2시 ~6시
11월 17일(월요일) 저녁 6시 ~10시
양일중 택일하여 수강후 10회 실습
- 장소 : 성 아그네스천주교회 회의실
- 수강료 : \$200
- 문의 : 323-731-4433(사무실)

◆ 성 프란치스코 성당 기금마련 2014 Fair 안내

- 일시 : 10월 31일(금) ~ 11월 2일 (주일)
- 행사 내용 : 놀이기구와 게임등
- 입장티켓 : \$20 / 명 / Day, 놀이기구 9개 포함

☺ 서로 인사 합니다. ☺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차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올리아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김양금 안나 991-4838 11/15(토)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찬구요한 701-6343 11/8(토) 오후 6시 성당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11/11(금) 오후 7:30 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 오780-3258	김대우 비오 920-7647 11/15 (토) 오후6시
	2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홍광선 요셉 991-8556 11/8(토) 오후6시
	3	정광미프란체스카 617-1132	박명순안나 750-0540 11/14(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테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김준 방지거 625-3312 11/21(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임미숙 로사 634-6923 11/7(금) 오전11시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이상철 크리스토퍼 11/8 (토) 오후 6시 30분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올리아 404-1607	최기호 스테파노213)222-3168 11/3 (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권태만 실베스텔 989-9077	1/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김윤진 카타리나 749-3151 11/8(토) 오후 7시
	3	1,2반과 같음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유근우 알렉시오735-3722 11/14 (금) 오후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이재준 요한 793-6157 11/15 (토) 오후 7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김병록 요셉 503)927-0770 11/14(금) 오후7시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박혜은 모니카 377-6752 11/10(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 반장회의	오후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제 단체 모임의 날	오후1시
------------	------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 오늘 주일(2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2차헌금 이 있습니다.

11월
위령성월

위령성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입니다.

이 위령 성월에 신자들은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지들의 영혼은 물론 모든 죽은 이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는 이 시기에 특히 연 옥에서 단련받는 영혼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과 상담소운영

- **상담내용** : 정부복지혜택, 영어서류해석, 서류신청방법, 도움이 필요한분등...
- **상담일시** : 매달 첫째주 & 둘째주 7:30 미사후 : 강당
11:00 미사후 천교장
- **전화상담** : 이정훈 안셀모 ☎(310)908-8823

◆ 배론 청년회 기금마련 "냉동왕만두 / 고구마" 판매

- 일시 : 11월 1일 (토), 2일 (주일)
- 왕만두4개 / \$10, 고구마 \$16 /10LBS
- * 수량한정으로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최태훈 아오스딩 ☎(310)508-2123

◆ 무료 독감주사 안내

- 일시 : 11월2일, 9일(주일) 양일간
- 장소 : 11시 미사후 야외 천교장 또는 강당
- 주최 : 사회복지분과
- 협찬 : 수호천사보험

◆ 남가주 한인가톨릭 합동위령미사

- 일시 : 11시8일(토)
연도 오후 1시15분, 미사 오후 2시
- 장소 : Holy Cross Cemetery

◆ 요셉회 11월모임안내

- 일시 : 11월 16일 (주일) 11시미사후
- 장소 : 강당
- * 추수감사절 특별점심 준비중, 부부동반환영

◆ 제33회 남가주 한인 추수감사절 합동야외미사

- 일시: 11월27일 (목요일), 오전 10시
- 엘도라도파크 (Long Beach소재)
- 미사집전 : 호세 고메즈 주교님
- 주관 : 성 바실 성당
- 합동야외미사에 오시는 신자분들은 가급적 카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햇빛가리개 모자는 각자 준비하여 주십시오.

◆2014년 남가주 꾸르실료 송년의 밤 행사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 일시 : 2014년 12월6일 (토요일) 오후6시
- 장소 : 성 바오로 성당 (St. Paul Korean Church)
- 티켓 : 10불
- 문의 : 남해나 분다 ☎ (310)384-3289

◆남가주 한인 M.E sharing 송년 파티

- 일시 : 12월13일(토요일) 저녁 6시
- 장소 : The Center at Sycamore Plaza
(Lakewood Community Center)
- 연락처 : 정동호 하삼바오로 ☎(310)780-9055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1월 2일(주일) * 소공동채 : 김밥(\$4)
* 주일학교 : 스파게티(6학년)
- 11월 9일(주일) * 하버카슨 : 무생채 비빔밥(\$3)
* 주일학교 : 미트볼 샌드위치 (5학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부금	강미순 박완철 오세원 이형상 최이원	고천용 박정희 윤화경 임 순 최태훈	김 준 박종열 이경태 장영진 홍석인	김관기 반비오 이영석 정규숙	김교복 안민수 이원형 정동호	김옥찬 안재경 이현주 정병훈	성전현금	강미순 박정희 이영석 정동호	고천용 반비오 이현주 최이원	김 준 안민수 이형상 최태훈	김관기 오세원 임 순	김교복 윤화경 장영진	박완철 이경태 정규숙
	합계 :2,815							합계 :1,645					
주일미사 현금 : \$2,659													

잘 죽어 볼까요?

천주교 신자들의 모순이 크게 두가지 있습니다.

하나를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지만, 정작 하느님을 향한 사랑 실천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면 얼마만큼 하느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① 사랑하는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만나는 것도 귀찮아 한다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일까요?(미사)

②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주일에 천 원을 쓰는 것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일까요?(헌금)

두 번째는 “하늘나라를 가고 싶으세요?”라고 물으면 모두가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실 분, 손드세요.”라고 하면 아무도 손을 들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가고 싶지만, 지금 당장은 가고 싶지 않고 나중에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들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바로 가고 싶어 하는데,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겠다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것일까요?

병원 사목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사실 삶과 죽음은 하나입니다. 태어나는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 둘은 하나인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살펴보면 기쁨과 슬픔도 하나이고, 행복과 불행도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삶, 밝음, 기쁨, 행복, 쾌락)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그와 반대된다고 생각되는 것들(죽음, 어둠, 슬픔, 불행, 고통)에 대해서는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전의 한쪽 면만을 가질 수 없듯이 삶과 죽음도 하나이고, 기쁨과 슬픔도, 행복과 불행도 모두 하나입니다.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은 삶을 잘 살아가는 것과 더불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시고 몸소 보여 주셨듯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신자분들이 누군가에게 잘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면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해 주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오늘 하루를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면 잘 죽을 준비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이런 하느님의 따뜻한 사랑을 깨닫고 사랑의 눈길로 세상을 바라보면 죽음의 두려움과 어둠 속에서 살지 않고 빛속에서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위령의 날을 맞이하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직도 죽음의 이유조차 알지 못하고있는 세월호 희생자분들이 하느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편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지형신부 / 서울 삼성병원 원목사제

욕망-내리막

정상은
없었습니다.
올라가면 갈수록
오른만큼 정상은
더 멀어졌습니다.
지쳤습니다.

더는 건널 수 없어 내려오는 길,
내리막이 오르막보다 힘겹다는 걸 내려오면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멀었는지 까마득합니다.
언제 이렇게나 많이 올라왔던 것일까요.

◆이영 아녜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이호미 엘리사벳	정광미 프란체스카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이민상 요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유현자 안나
체물봉헌자			토납 1,2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신덕레 데레사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박진수 스테파노	장영진 안토니오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박혜경 레나타	정명모 마리아
체물봉헌자			토복 1,2반

토 요	(연)민찬기 요한
특전미사	(생)홍석인 체칠리아
주 일 낮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운조 클라라, 이현호 요한, 박무성, 고준희 제임스, 송근섭 발렌티노, 전시웅 요한, 연옥영혼, 김옥순 소피아, 이석진 가브리엘, 이용식 베드로, 최용복, 이관임, 최명진, 김현숙 마리아, 신영순 로사, 박성현 루스, 김윤엽&장무등&김훈규, 박문규 프란치스코&최옥선클라라, 이강희윤일요한 & 박덕기카타리나, 송기인 요셉 & 김재순아가다 (생) 반비오 & 반나영 체칠리아, 현시영 요셉, 김양금 안나, 방미숙 마리아 & 김현숙 벨라텃타 & 우영희 엘리사벳, 우현정 안젤라, 정엘리스 클라라, 박브랜든 안토니오 & 박소영 프란체스카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지혜서 (Wisdom)3,1-9

화답송 ◎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나는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땅에서 걸으라- 라

○ 주님은 너그럽고 의로우신분, 우리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네. 주님은 작은이들을 지키시는 분, 가엾은 나를 구해 주셨네.◎

○"나 참으로 비참하구나." 되면서도 나는 믿었네. 문득 놀라 나는 말하였네.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 ◎

○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아, 주님, 저는 당신의 종.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 주셨나이다.◎

제 2독서 로마서(Romans) 5,17-21

복음 ◎ 알렐루야.

환호송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천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복음 마태오(Matthew) 11,25-30

영성체송 주님, 당신은 자애로우시니, 당신 성인들과 함께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목마른 사슴	350	196
봉헌	주 찬양합니다	269	269
성체	418	305	284
파견	431	346	245

성령과 색신

올바른 성령 이해

2)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는 성령

성령의 신성에 관한 논쟁은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 종결되었지만, 성령의 발출과 관련해 또다시 논쟁이 벌어진다.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는 성령의 완전한 신성을 인정하면서 "성령께서는 성부에게서 발하신다." 고 선언하였다. 그런데 이 표현을 이해하는 데에서 동방과 서방 간에 서로 차이가 났다. 동방의 그리스 교부들은 성령께서 '성자를 통하여(per Filium)' 성부에게서 발하신다.' 로 이해하였다. 반면에 서방의 라틴 교부들은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에게서(ex Patre Filioque)' 발하신다.' 고 이해하면서 신경 본문에 "필리오케" (Filioque: 그리고 성자에게서) 라는 표현을 첨가하였다. 이 때문에 동방과 서방 사이에 큰 논쟁이 벌어진다. 성령의 발출 방식과 관련해 서방이 동방과 다르게 생각하게 된 것은 오랜 사고 과정의 결과였다. 물론 서방에서도 신적인 원천은 오직 성부 한 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5세기부터 7세기 사이에 사변적인 사고 과정을 거치면서, 성자께서 성부에게서 태어나실 때 성부께서는 성자에게 모든 것을 전달하셨다(마태 11,27 참조)는 점이 강조되었고, 신적인 원천이 되는 것까지도 성자에게 전달하셨다는 견해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하나의 원천으로 간주되었다. 곧 성부께서는 본래부터 원천이시고, 성자께서는 성부로부터 전달을 받아서 원천이 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서방에서는 성령의 발출과 관련해 성부와 성자를 전적으로 동등하게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하신다는 이해에 이르게 되었다. 마침내 이런 입장을 담은 '필리오케'란 표현이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 삽입되었다.

동방에서는 9세기 이래로 이 표현을, 유일한 신적 원천인 성부의 고유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격렬하게 반대하였다. 대표적으로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포시우스 대주교(†891)는 바로 이 표현 때문에 로마를 이단이라고 비난하였다. 결국에는 '필리오케'의 문제가 1054년에 동방과 서방이 분리되는 데에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였다. 서방 교회는 동방 교회의 반대에 저항하느라, 자신의 입장을 더욱 굳게 표명하였다. 그래서 '필리오케'란 표현은 1215년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 1274년 제2차 리옹 공의회, 1439년 피렌체 공의회에 서 거듭 확인되었다. '필리오케'문제는 서방과 동방 교회의 일치를 논의한 피렌체 공의회에서 정식 의제로 다루어졌다. 서방 교회 측에서는 교의 발전과정에 대한 좀 더 역동적, 역사적 관점에 근거해서 신경에 새로운 것을 첨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변호하였다. 신앙 고백은 영구히 완결된 것이 결코 아니고, 따라서 모든 공의회는 신앙의 완전성과 통일성을 손상시킴 없이 신앙 고백을 새로이 정식화하고 첨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계속>